

제4강

중세 봉건제 사회의 특성과 빈민정책

Contents

1

중세 봉건제사회의 배경과 구조

2

중세봉건제사회의 빈곤과 빈민의 성격

3

중세 봉건제사회의 빈민정책

1. 봉건제 사회의 배경과 구조

1) 봉건제(feudalism)란

- 봉건제 사회는 봉건영주(magnates)들이 국가권력과 토지를 소유하고 불완전한 소유로 예속된 농노적 농민들을 착취하는 계급사회
- 봉토로 된 땅을 라틴어로 'feudum'. 이 단어에 따라 그 사회를 봉건제(Feudalismus, 체코어, 발음: 페우달리스무스)라 부르고, 그 지배계급을 봉건영주(Feudalherren)라 부름. 거기에는 왕과 봉신 이외에 고위 성직자도 포함(호르스트 디레 외, 1990: 93).

2) 봉건제(feudalism)의 발생

- 로마를 정복한 게르만인의 이동이 봉건제도의 발생을 촉진시킴.
- 게르만인이 로마를 정복하고 세운 국가 중에서 가장 강하고 오래 존속했던 왕국이 프랑크왕국 (봉건제도의 형성과 발전을 파악하는데 전형적인 사례였음).
- 카롤링거 왕가가 프랑크 국가를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만든 수단 중의 하나가 봉건제도. 봉건제도를 통해 지배계급이 재조직됨

3) 봉건제 사회의 계급구조

(1) 봉건제 사회의 지배계급

- 봉건사회의 신분제도는 봉건적 토지소유에 기초→봉건지배 계급 내에서도 피라미드식 위계질서가 세워짐
- 봉건사회의 지배층은 장원의 많고 적음, 지배하는 토지의 크기에 따라 최고의 신분으로서 **국왕**이 있고, 그 아래 **귀족**과 **젠트리**와 같은 지주귀족들
- **국왕**은 국가주권의 최고 소유자였고, 동시에 한 나라의 최대 지주, 최고의 영주로서 봉건적 신분위계에서 최상층을 차지
- **귀족**은 가장 높은 직위의 왕실혈통 귀족인 **공작(duke)**을 비롯하여 백작(earl), 후작(marquis), 자작(viscount), 남작(baron), 기사가 있음. 이들은 정치적 권리와 신분적 특권을 누림 (박지향, 1997).

(2) 봉건제 사회의 피지배계급

- 봉건사회의 피지배계급은 **농민과 장인**.
- 농민은 층화되어 있음
- **자유농민(freemen)**: 지대는 내지만 영주에게 경제외적 의무를 지지 않는 농민
- **빌런(Villein)**: 30에이커 이상을 보유하는 농민
- **오막살이농(cottar, bordar)**: 오막살이집과 1~5에이커 정도의 토지를 보유한 농민
- **농노(serf)**:
- **장인**: 대장장이, 목수, 방아꾼 등이었는데, 이들도 약간의 농지를 보유하고 있었음

(3) 착취 형태: 부역과 연공

- **부역**: 농노가 농노소유자의 토지를 경작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. **연공(年貢 또는 공납)**: 지주에게 바치는 농민이 생산한 여러 가지 생산물의 일정분량
- **피지배계급에게 봉건제도는 한없이 무거운 압박을 의미**

4) 봉건제 사회의 사회경제적 구조

(1) 봉건적 생산(봉건경제)의 기본적 특징(영국)

- ① 자급자족의 자연경제(자기 자신의 수요를 위한 생산만을 하는 것)가 지배적
- ② 직접생산자인 농민은 생산수단(토지 포함)을 제각기 가지고 있고, 나아가 이들은 토지에 얽매어 있었음
- ③ 농민은 지주에게 인격적으로 예속되어 있었음
- ④ 이러한 경제제도의 조건이자 결과는 매우 뒤떨어지고 경직된 상태에 머물렀던 기술수준이었음

2. 봉건제 사회의 빈곤 개념과 빈민의 성격

1) 중세 초기(600~1050) 빈곤의 개념과 빈민의 성격

(1) 중세 초기 빈곤의 개념

- 경작할 땅에 대한 권리가 없어 생계를 남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태
- 누가 경작 수단을 어느 정도 보유하느냐에 따라 빈부가 결정되는 시대

(2) 중세 초기 빈민의 성격

- 영구계약에 의한 후견인의 보호하에 충성과 봉사를 다짐하는 사람들
- 경제적, 사회적, 도덕적으로 열등한 존재로 간주(허구생, 2006: 69)

2. 봉건제 사회의 빈곤과 빈민의 성격

2) 중세 전성기(1050~1300)의 빈곤

(1) 10세기 이후 유럽의 사회경제적 변화

- 인구증가에 의한 토지 수급의 불균형 현상
- 도시의 발달과 화폐경제의 확산
- 가부장적 가족제도의 균열 발생
- 경제적 불황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 빈약
- 가뭄, 폭우,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질병
- 빈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투기 횡행
- => 사회적 갈등 야기, 사회질서 위협

2. 봉건제 사회의 빈곤과 빈민의 성격

2) 중세 전성기(1050~1300)의 빈곤

- 농민에 대한 압박과 착취 증대
- 독자적인 경제활동은 전혀 할 수 없었고, 비참한 움막에서 살며 영주의 가축을 기르고 정원을 가꾸고, 밭을 경작하고, 마구간, 저택, 헛간 및 생산기기들을 돌보았다.
- 그러한 노동의 대가로 그들은 단지 목숨을 부지할 만큼만 받았다. 봉건영주는 그들을 팔거나 학대할 수 있었다. 그러나 죽일 수는 없었다(호르스트 디레 외, 1990: 94)
- 농노들이 가장 바랐던 것은 오직 검은 빵과 얼마간의 버터, 치즈를 거르지 않고 먹으면서 사는 것이었다(조성오, 2006: 96).

2. 봉건제 사회의 빈곤과 빈민의 성격

3) 중세 말기(1300~1500)의 빈곤: 14세기~16세기

- 노동빈민의 출현
- 농촌에서는 농업부문의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영주에 대한 의존성이 다시 심해지고, 고리대금에 의존하는 빈민이 증가.
- 종자, 가축, 생필품을 위해 빌린 돈의 이자는 최소한 30~40%. 많은 농부들이 빚을 상환하지 못해 야반도주하여 부랑걸인집단에 합류(허구생, 2002: 101)

2. 봉건제 사회의 빈곤과 빈민의 성격

4) 중세에 있어서 빈곤의 의미와 성격: 천국행 티켓으로서의 자선

- 빈곤이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당연히 존재하는 문제로 수긍
- 빈곤은 하나의 유용한 역할
- =>기독교의 가르침인 빈민에 대한 자선이나 시혜행위를 부자들이 행하는 것을 증명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
- =>부자들은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믿음
- 자선은 자선을 행하는 자의 행복의 기회를 증가시키는 것을 위한 행위였고, 오늘날의 빈민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음(박광준, 2002: 64).
- => 부자들의 자선은 천국행 티켓이었던 것

3. 중세 봉건제 사회의 빈민정책(영국)

1) 배경

: 14세기 들어 중세 봉건제 사회의 붕괴 조짐

〈붕괴요인〉

- 1348-1349년에 발생한 흑사병 : 영국민의 1/3 사망. 대규모의 유민발생. 봉건제를 밑으로부터 무너지게 하는 일차적 촉발요인으로 작용.
- 인클로저운동 : 봉건농민을 농토에서 내몰아 부랑자로 전락시킨 직접적인 원인은 공유지 울타리치기, 즉 인클로저(enclosure).
- 인클로저의 원인: 양모가격의 상승. “양이 사람을 잡아 먹는다.” _
- 토마스 모어. 인클로저는 19세기 초까지 파상적으로 진행. 농민(농노)들을 토지로부터 몰아냄. 유랑민과 걸인 양산.
- 자본주의적 산업화를 촉진한 결정적 요인이 됨.

3. 중세 봉건제 사회의 빈민정책

2) 빈민정책의 내용

(1) 1349년 노동자법

- 최초의 빈민법적 통제: 노동자의 임금상한선을 규정하고 강제하는 노동자법 시행
- 노동자법의 목적: 노동 가능한 빈민의 구걸 처벌 및 그들에 대한 시혜 금지, 노동강제
- 배경: 노동력 감소와 농민의 유랑화 . 노동임금의 상승 초래. 임금통제 불가피

3. 중세 봉건제 사회의 빈민정책

2) 빈민정책의 내용

(2) 1361년 노동자법

- 목적: 임금의 상한선 규정 더욱 강화
- 배경: 1349년 법이 한동안 적용되지 못함
- 내용: 일자리에서 이탈한 노동자에게 불신(falsity)의 표식으로서 'F'의 낙인을 얼굴에 찍음. 그러한 노동자를 고용한 사람에게 벌금 부과

3. 중세 봉건제 사회의 빈민정책

2) 빈민정책의 내용

(3) 1388년 빈민법

- 목적: 임금의 고정화, 임금상승을 야기시키는 노동력 이동 금지
- 내용: 거주 이동의 허가증 없이 자신의 거주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일하거나 거주하거나 순례하는 것이 금지됨
- 평가: 당시의 농업노동자의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였고, 여전히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의 문제는 정책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음

3. 중세 봉건제 사회의 빈민정책

2) 빈민정책의 내용

(4) 1531년 걸인부랑자처벌법

- 1531년 지방행정 책임자들이 구걸 노인과 노동무능력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고 등록한 다음 이들에게만 구걸을 허용할 것을 규정(거지면허)
- 노동능력이 있는 데 나태한 걸인은 태형, 부랑자는 이전에 3년 이상 거주했던 곳으로 강제 추방시키고 강제노동을 강요

3. 중세 봉건제 사회의 빈민정책

2) 빈민정책의 내용

(5) 1536년 건장한 부랑자걸인처벌법

- 빈민구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교구에 구빈세 징수권 부여
- 치안판사와 시장은 미성년 걸인(5~13세)을 도제로 삼고 이를 거부할 시 매질
- 부랑자가 두 번 잡히면 매질과 함께 귀를 자르고 세 번 잡히면 사형

3. 중세 봉건제 사회의 빈민정책

2) 빈민정책의 내용

(7) 1547년 부랑자를 농노로 만드는 법

- 피비린내 나는 입법의 전형 : 가장 가혹한 법
- 노동능력자가 3일 이상 노동거부, 뜨거운 인두로 가슴에 V자 낙인을 찍고, 그들을 고발한 자의 노예로서 2년 동안 일하게 함
- 도망자에게는 초범의 경우에 이마에 S자 낙인을 찍고 평생토록 노예로 만듦. 재범의 경우에는 사형에 처함
- 누구든지 부랑자로부터 자식을 빼앗아 남자는 24세까지, 여자는 20세까지 도제를 삼음
- 도제가 도망치면 장인은 매질을 가하고, 노예로 삼음. 노예는 목이나 어깨 또는 다리에 쇠고랑을 채움.
- 빈민에게 음식을 주거나 일자리를 주는 사람은 빈민 노동 사용권 부여(교구노예)

3. 중세 봉건제 사회의 빈민정책

- 4) 빈민정책의 평가

- 노동자법은 국가수준에서 빈민을 의식하고 그들을 대상으로 하여 제정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
- 그러나 그것은 빈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상업적 이익을 가진 정부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었으며, 억압 일변도의 정책이었음.
- 노동자법에서 중요한 측면 : 노동자를 강제로 일하게 하면서 임금의 상한선을 두었고, 임금은 정해진 일정 수준 이상 지급되어서는 안되며,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였다는 점
=> 일방적 억압, 강제노동의 도구에 불과
- 어떤 국가개입조치의 의미는 그 개입 자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져온 결과 및 효과와 더불어 그 동기와 의도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함.
- 노동자법과 동시대의 국가개입들은 '사회복지 이전의 시대'에 속하게 되는 것임

3. 중세 봉건제 사회의 빈민정책

- **〈시대적 특징〉**
 - 빈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도도 없었고 빈곤문제에 대해서는 무관심과 방치로 일관
 - 국가의 개입조치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님. But 국가의 개입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개입의 의도와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.
 - 빈민의 일방적인 억압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개입
- **〈국가의 대응에서 나타나는 특징〉**
 - 국가의 관심사는 ‘노동능력이 있는 빈민’이었고 그에 대한 대응도 그들에게 집중되었다는 점
 - 빈곤의 구제나 빈민의 생활조건 개선이 아닌 노동력의 공급과 부랑에 의한 사회질서 위협의 방지에 관심
 -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에 대한 국가의 반응은 무관심과 박해로 일관했다는 점

The background of the slide features a series of flowing, wavy lines in various shades of blue, ranging from a deep navy blue at the bottom to a light, almost white blue at the top. The lines create a sense of movement and depth, typical of a modern corporate or academic presentation design.

Thank You!

LOGO